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담당 : 배서영 공동상황실장 010-9956-4753)

제 목 (가칭)4.16국민연대 제안 및 인양축구 도보행진과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15. 2. 16. (총 7 쪽)

보 도 자 료

(가칭)4.16국민연대 제안 및 인양축구 도보행진과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16일 (월) 오후 2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9명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월호' 선체의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을 촉구합니다.
2. 4.16국민연대 구성을 함께 협의해 온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지역의 풀뿌리 단체, 활동 커뮤니티 모임, 종교계, 학술계,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의 대표자 및 주요 책임자들은 세월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4.16운동기구로서 (가칭)4.16국민연대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2월16일 오후2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4.16국민연대 결성의 제안 취지와 4.16국민연대의 향후 주요 활동계획을 발표합니다.
3. 더불어 1월26일부터 2월14일까지 전개된 인양축구 도보행진의 결과와 긴급하게 병행 한 인양축구 범국민서명의 결과를 발표하여 정부 측에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자 합니다.
4. 기자회견의 세부 내용과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취지와 순서

■ 붙임자료 2. <제안문(기자회견문)과 향후계획>

■ 붙임자료 3. 인양축구 도보행진과 서명 결과문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취지와 순서

<(가칭)4.16국민연대 제안 기자회견의 주최자(제안자)>

- 제안자는 그동안 4.16국민연대 구성을 위해 함께 협의해 왔던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지역의 풀뿌리 단체, 활동 커뮤니티 모임, 종교계, 학술계,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의 대표자 및 주요 책임자들입니다.
- 제안자는 향후 4.16국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준비위원으로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3월4일 저녁7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확대 위촉한 준비위원과 4.16국민연대의 구성, 활동 준비를 본격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월호 온전한 인양축구 가족과 국민의 청원서명 국무총리실 정부종합청사 전달>

- 기자회견 후 정부서울청사로 전달
- 14일, 진도에 수천의 인파가 팽목항을 가득 메워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우리 가족과 함께 울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 인양축구 서명에 함께 해 주신 수만의 국민서명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설연휴를 앞 둔 쉽지 않은 연초의 시기에도 이렇게나 많은 힘을 보태주신 국민여러분의 뜻을 전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명칭 : (가칭)4.16국민연대 제안 및 인양축구 도보행진과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월 16일 (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기자회견 순서

- 1) 기자회견 사회 - 취지 말씀
- 2) 4.16국민연대 제안 발언 : 가족과 시민
- 3) 인양축구 도보행진과 서명 결과 발표 : 4.16가족협의회
- 4) 4.16국민연대 제안서 낭독
- 5) 기자회견 후 정부종합청사 인양축구 서명 전달

※ 참가자 및 발언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붙임자료 2. <제안문(기자회견문)과 향후계획>

<4.16국민연대 제안서>

2014년 4월16일 이후 아직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유가족과 우리는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맞서 싸워 왔다. 온갖 모욕과 혐오를 견디며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으로 특별법도 만들었다.

결국 변한 것은 우리 자신이었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사실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노란리본의 물결, 천만서명, 3만의 단식, 수백일이 넘는 국회, 광화문, 청운동, 팽목항 농성. 수없는 행진과 행진. 수만 명의 국민과 함께 한 헤아릴 수 없는 수백 회의 간담회.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진실의 광장이 열렸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우리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기치는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을 두고 정부여당의 비협조와 방해로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폐쇄적이고 반국민적인 행태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장벽을 넘고 진실과 안전의 시대로 가기 위한 힘은 오직 우리 국민에게 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이미 수차례 확인하였다. 전국 경향 각지에서 가족과 국민들은 서로 만났다. 같이 울고 함께 다짐하였다.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끝까지 행동하겠다고...그것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약속이자 맹세였다.

이제 우리는 더 넓어져야 하고 더 커져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

유가족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전국에 흩어진 시민역량을 모으자.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고 제안하고 서로 끌어주기 위해 모이자. 거의 모든 시군구에서 국민간담회를 열었던 우리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해 4.16을 기억하고 또 행동하려는 수많은 작은 움직임들, 4.16약속지킴이들의 열망 이 모두를 촘촘히 이어내자.

4월16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면,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세상을 만들자면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 4.16가족들이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우리의 4.16운동은 가치를 바꾸는 운동이 될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정상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거듭날 것이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4.16약속지킴이가 앞장서고 전국의 자발적인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하자. 모든 풀뿌리가 모이고 각계가 모이고 전문가들도 함께 하여 국민주도의 4.16 진실과 안전의 새 운동으로 함께 가자.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더불어 하나 되는 통합적 4.16시민운동으로 함께 가자.

진실과 안전, 존엄과 권리를 위하여 4.16국민연대를 함께 만들어가자!

2015년 2월16일

(가칭)4.16국민연대 제안자 일동(아래 제안자 연명)

4.16가족협의회 찬호아빠 전명선(대표), 예은아빠 유경근(집행위원장), 수현아빠 박종대(진상규명소위원장), 동혁엄마 김성실(대외협력소위원장) / 안산 세월호문제해결을위한시민대책위 마이금 공동대표 / 양평 바람개비들이꿈꾸는 세상 / 노원 4.16약속지킴이 / 마포 세월공감 김우, 박수경, 이창환, 양희경, 임상희 / 성북 안영신, 조덕섭 /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김선우 김영순 임성열 노진철 황동환 / 리멤버0416 오지숙 대표 / 엄마의노란손수건 정세경 대표, 오혜란 대표 / 광화문 리본공작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박승렬 목사, 정태호 목사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김인국 옥천성당 주임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권오광 상임대표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송주명 교수 / 새언론포럼 현상윤 / 법조인 권영국, 김용민, 김인숙, 김택수, 박인동, 손명호, 송기호, 신장식, 위은진, 이덕우, 이재정, 이재화, 조영관, 좌세준 (이상 변호사)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박래균 공동운영위원장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엄형철 운영위원장(환경연합 사무총장)

<향후 (가칭)4.16국민연대 계획>

1.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모임

- 3월4일 오후7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 100여개 이상의 시군구와 광역의 풀뿌리 4.16약속지킴이 제안자와 국민간담회 주최자, 다양한 세월호 시민모임과 단체와 개인,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등 준비위원으로 위촉
- 사무국 개설과 사무실 입주, 회원(개인,단체) 모집 진행 논의

2. 당면 주요 계획

- 1) 4.16 1주기 범국민추모대회 준비
 - 4월16일에 즈음한 1주기 범국민추모대회와 범국민추모위원 및 국민참여기획 등을 계획.
- 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감시 및 대응

3. 목표와 과제

1) 목표와 역할

- ① 4.16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목표로 세월호 가족이 참여하는 통합적이며 전국적인 범위의 상설적 행동기구로서 역할 한다.
- ② 전국 광역과 시군구를 단위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풀뿌리를 비롯한 다양한 모임, 4.16약속지킴이와의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전국 곳곳에 각 거점이 마련되도록 촉진 확장시켜 나간다.

2) 장기 과제

- ① 시군구의 다양한 세월호 풀뿌리 활동 단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와의 교류 연결망을 파악하고 이어주는 거점들이 전국 각지(광역시군구)에서 마련되도록 지원하고 이어주는 역할로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상근자를 두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의 연결망, 정보제공, 홍보활동제공 등을 보장한다.
- ②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나선 종교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학술계 등의 부문, 전문가 그룹과의 교류 연결망을 파악하고 이어주어 다채로운 부문활동의 공간들을 소개하고 시민들과의 교류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며, 시민교육의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강사은행과 같은 전문가그룹을 확보하여 연결해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한다.
- ③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활동으로서 인양추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 안전사회 건설과 4.16인권선언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 특별조사위원회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 4.16 1주기를 비롯한 범국민적 공동행동을 제안해 나가고 확산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3) 당면 과제

- ① 4.16 1주기에 즈음하여 전국집중추모주간 및 국민추모행동 등을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기획하고 또 다채로운 행동기획들을 수립, 파악, 공유하여 확산해 나가도록 하고, 1주기 대회 기획을 함께 공유하고 준비하여 1주기에 범국민적인 결집을 이루도록 한다.
- ② 4.16 1주기를 목표로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를 3월달 전국 순회로 이어나가고, 이에 발맞추어 시군구 연결망을 확실히 다져나간다. 이 과정에서 4.16약속지킴이 제안자 전국 워크숍(1.31)을 계기로 시군구 약속지킴이 제안자들과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가져나가 '전국 공동행동', '각각의 특색있는 행동' 기획을 3월달에 펼쳐나가 4.16 1주기로 모아나갈도록 한다.
- ③ 3~4월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가족과 함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지원 등에 대한 범국민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확산해 나갈 연속 토론회 등을 기획하며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단 모집 기획을 구상 검토한다.

■ 붙임자료 3. 인양축구 도보행진과 서명 결과문

우리는 1월 26일 안산 합동분향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수원, 오산, 평택, 천안, 세종, 대전, 계룡, 논산, 익산, 전주, 정읍, 담양, 광주, 나주, 무안, 목포, 해남, 진도, 팽목항으로 약 500km의 거리를 도보행진 하였습니다.

전일도보행진 가족과 시민 55명, 전 구간 릴레이로 참여한 가족과 시민 참가자 연인원 6,600여명, 14일 당일 진도-팽목항 도보행진 구간에는 1,5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걸으셨습니다. 또, 14일 팽목항 범국민대회에는 5천여명의 시민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기간 정부 국무총리실로 선제 훼손없는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로 직접 팩스로 전달된 인양축구 청원서명이 28,942명,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직접 국민께 받은 서명이 47,427명으로 모두 76,369명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보행진기간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1차로 서명을 5만명 목표 하였습니다. 우리는 도보행진이 끝나도 인양이 될때까지 서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족과 국민의 뜻을 담은 서명지를 정부 측에 전달할 것입니다.

도보행진 기간 우리는 변함없는 국민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양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단원고에는 생존자 학생 반이 다시 11반부터 생겼지만 우리는 상징적으로 시민참가자들을 2학년 11반으로 이름지어 함께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80대 시민참가자 박종대 님의 행진, 평택 쌍용자동차 해직자 아내 분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 한끼. 도보행진 지역마다 잠자리와 식사를 지원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 또 전주의 한 남매 분이 보태주신 몇 년간 모은 저금통. 유치원생 아이들의 사랑합니다의 외침. 함평여중 학생들의 응원. 서연여고 학생들의 공연. 실로 표현하기도 벅찬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습니다. 신발이 맞지 않아 맨발 도보를 7일간 했던 우리 가족. 부상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한 우리 가족과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도 끝 보다 더 먼 걸음이 되어야 할 팽목항까지 참여하시고 지지해주신 국민여러분의 뜻은 오직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바로 이것이며 이는 우리 가족의 염원과 일치한 요구로서 눈물을 머금고 보내준 그 뜨거운 열망을 우리는 두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끝.